## 5월 16일(월) / 시21-24

- ▶내용요약: 21편은 20편과 한 쌍의 노래로 20편에 나온 다윗의 간구와 응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표현된다. 하나님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구원을 찬양한다. 22편은 다윗의 개인적 고난을 다루지만 사실은 메시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언시이다. 23편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이 담겨있다. 24편은 언약궤를 시온 산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심을 선포한다.
- ▶절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을 안위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23편)
- ▶생각하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목자로서 양과 가축을 돌보던 사람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23:1)는 고백을 함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전에 자신이 목자로 양과 가축을 이끌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목자의 인도로 찬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 5월 19일(목) / 시49-51

- ▶내용요약: 49편은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교훈시이다. 악인들은 비록 번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공허할 뿐이다. 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다. 50편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성실한 예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기록된다.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철저한 참회가 기록된다.
- ▶질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인가?(51편)
- ▶생각하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청찬받았던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오점은 방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엄히 꾸짖으시자 다윗은 51편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을 방세바를 통해 후사로 주신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서도록 하자!!!

#### 5월 22일(일) / 시90-93

▶내용요약: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모세의 작품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생활을 할 때에 기록되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서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누리는 안전과 보호하심을 다룬다. 특히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축복들이 나열되는데, 구원받음, 존귀와 영화, 기도응답, 임재

### 5월 17일(화) / 시34-36

- ▶내용요약: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미친 체하면서 쫓겨난 후,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이다. 비록 그는 처량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 35편은 다윗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분노하면서도 이를 숭화시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 36편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의인은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대조하다.
-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진실로 ( )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36편)
- ▶생각하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블레셋까지 도망했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 미친 체 해야만 했던 때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34:19)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바로 이어지는 그의 고백,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5월 20일(금) / 시73-75

- ▶내용요약: 73편은 왜 세상에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안목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다. 74편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재앙을 입어 성소가 파손되고 회당이불타버린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주시도록 기도한다. 75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로 의인을 높이고 악인을 꺾으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행하시는 것 은 무엇인가?(73편)
- ▶생각하기: 73편에서 시인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73:3)고 한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투이자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고민하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 그 의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때에야 해결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다!!!

와 동행, 장수와 만족의 축복 등이다.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하나님의 크신 행사와 깊으신 생각에 대해 찬양한다. 의인들이 형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결과임을 알려준다. 93편은 만물을 통치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영원하심을 찬양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 **질문**: 인간 연수가 칠십이고 강건하면 팔십까지라고 하면서 연수의 자랑 2가지를 언급한다. 연수의 자랑 2가지는 무엇인가?(90편)

# 5월 18일(수) / 시42-45

- ▶내용요약: 42편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는 아름다운 시이다. 43편은 42편 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룩한 산에서 하 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망이 기록된다. 44편은 시인이 원수의 조 롱과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상당히 웅장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절문: 본문에서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고 온 세계의 군왕이 될 이들은 누구인가?(45편)
- ▶생각하기: 42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에 비유한다.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애타게 찾으면서 헐떡이는 모습을 통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 5월 21일(토) / 시88-89

▶내용요약: 88편은 시인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는 개인적 인 탄원시이다. 하지만 다른 시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구원하 시리라는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함축되어 있다. 89 편은 공동체의 탄원시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대로 그의 자 손을 견고케 하고 고통에서 회복하실 것을 간구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

오니 ( )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88편) ▶생각하기: 89편의 시인은 고통이 지속되자 "여호와여 언제까지 니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89:46)라고 하면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89:47)라고 인간의 유한함을 가지고 탄원한다. 시인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시편 92편에서 시인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히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92:2-3)라고 고백한다. 시인은 지금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과 마지막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과연 아침에 무슨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서는 무슨 말로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찬양과 기도로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했복하고 좋음까!!!